

BTS,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100 Most Influential People)에 뽑혔다.

타임은 매년 세상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집단을 뽑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발표해왔다. 올해는 16일 자정 투표를 마감했고 17일(현지시간) 결과가 공개됐다.

방탄소년단은 아티스트 부문 17인에 포함됐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주연 라미 말레, 영화배우 겸 제작자 드웨인 존슨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의 추천사는 새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피쳐링을 맡은 미국 팝스타 할시(Halsey)가 올렸다.

서식지 700km 러시아에 북극곰 출현

북극곰 한 마리가 자신의 서식지로부터 약 700km 떨어진 러시아 극동의 한 마을에서 발견됐다. 환경론자들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진 모습의 북극곰 한 마리가 캄차카반도의 킬리키 마을에서 먹이를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이 발견돼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곰은 이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700km 떨어진 서식지 추코츠크를 떠난 것이 분명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환경론자들은 이 곰은 유빙 위에서 표류하는 동안 방향 감각을 잃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캄차카 당국은 이번 주 후반 진정제를 이용, 북극곰을 잠들게 한 뒤 헬기로 원래 서식지로 되돌려보낼 예정이다.

악어뿔서 'Help' 글자로 구사일생

악어가 들끓는 호주 오지 뿔뿔에 갇힌 커플이 진흙 바닥에 "도와달라"(Help)라고 쓴 덕에 가까스로 구출됐다.

콜렌 닐지트(20)와 여자친구 샬렐 존슨(18)은 지난 14일 서호주주와 인접한 노던 준주 킵리버(Keep River) 국립공원으로 낚시를 하러 갔다.

노던 준주 주 정부에 따르면 공원 곳곳에는 바다악어가 득시글거린다.

이들은 차를 몰고 국립공원 내 뺨발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됐다. 커플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15일 새벽 4시쯤 뺨발 마른 부분에 'Help'라고 썼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소리를 들은 이들은 곧바로 불을 지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구조됐다.

포르투갈서 관광버스 추락...29명 사망

마테이라섬 카니수마에서 가옥 들이받고 전복

희생자 대부분 독일 국적...사상자 40~50대

포르투갈 마테이라섬에서 독일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비탈길 아래로 추락해 최소 29명이 숨졌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것은 17일(현지시간) 오후 6시30분 포르투갈 서쪽 대서양에 위치한 마테이라섬 카니수 마을 인근이다.

독일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가파르고 비좁은 언덕길을 내려가던 중 급하게 방향을 틀다 중심을 잃고 추락하면서 가옥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으며 해도 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르셀루 헤벨루 지 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희생자 대부분이 독일 국적이라고 발표했다.

사고 버스에 포르투갈 운전기사사와 투어 가이드를 포함해 모두 56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망자 외 나머지 27명도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버스에 타고 있던 관광객은 모두 독일인이지만 일부 보행자가 사고 버스

에 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상자는 대부분 40~5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자 대부분이 독일 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포르투갈 정부는 독일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조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소자 대통령은 "비극적인 순간에 포르투갈 국민을 대표해 슬픔과 연대를 표시한다"며 독일인 희생자 유족에 위로를 전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트위터에 "마테이라에서 끔찍한 사고가 전해졌다"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깊이 애도한다"고 말



추락한 사고 버스.

/연합뉴스

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정부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들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중 무역합의' 이르면 5월말 서명

트럼프 "협상 좋게 진행 중...조만간 소식 들릴 것"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마진표를 찍기 위해 막바지 시간표 조율에 들어간 모습이다.

조만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되고, 여기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 운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중국은 이날 말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이날 29일째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동행한다. 그다음 주에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 워싱턴DC를 찾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소식통들은 류 부총리의 5월 초 방미기간에 관리들이 양국간 협상타결과 정상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

을 발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5월 말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순조롭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2주 안팎 합의문 문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빠르면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 27일) 전후로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좋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에 대해 아주 조만간 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아프간 정부 협상단 탈레반 만나

대표단 250명 꾸려...탈레반, 카타르 회담 '동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2001년 미국 아프간 침공 후 처음으로 반군 무장조직 탈레반과 대규모 협상단이 참여하는 회담을 추진 중이다.

18일 아프간 톨로 뉴스와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사흘간 열리는 비공식 회담에 참석할 대표단 250명을 뽑았다.

탈레반은 그간 "미국의 꼭두각시인 아프간 정부와 머리를 맞댈 수 없다"며 공식 협상을 거부해왔기에 이번 회담의 성사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의 대규모 대표단 간 사상 첫 회담

이 미국 주도하에 진행되던 평화협상에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탈레반은 협상이 열리기도 전에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도 보였다.

탈레반은 정부 대표단 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비조직적이라고 비판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탈레반은 올해 도하 등에서 평화협상을 벌여 아프간 내국제타러 조직 불허 등을 조건으로 현지 외국 주둔군을 모두 철수하는 내용의 평화협정 골격에 합의한 상태다. /연합뉴스

대만 화렌서 규모 6.1 지진

대만 동부 화렌(花蓮)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해 대만 전역이 크게 흔들렸다.

진앙 인근 지역의 진도가 7까지 올라가는 등 상당히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 피해 현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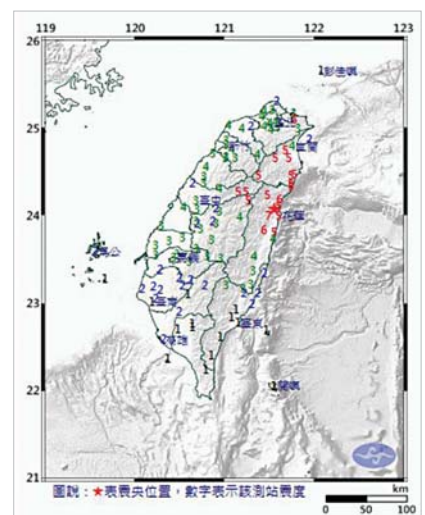
18일 대만 기상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분께 대만 화렌현 정부 청사로부터 서북쪽으로 10.6km 떨어진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의 정확한 위치는 북위 24도 13

분, 동경 121도 52분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18.8km였다.

이날 지진으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臺北)를 포함한 대만 전역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

지진이 발생한 화렌현 일대에서는 최대 진도 7의 강력한 흔들림이 발생했다.

대만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건너편인 중국 본토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연합뉴스



대만 지진 발생 지역(별 표시가 진원).

파키스탄서 무장괴한 버스 승객 테러

14명 사망·2명 탈출

파키스탄에서 무장괴한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세우고 승객을 내리게 한 뒤 적어도 14명을 살해했다고 등 현지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지역 고속도로에서 15~20명의 무장괴한들이 카라치에

서 가와라드 항구로 달리던 버스 5~6대를 세웠다.

파키스탄 당국 관계자는 "이들은 버스에 올라와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16명을 하차시켰고 이들에게 총격을 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14명이 숨졌고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말했다.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연합뉴스

남구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매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